

피부색부터 하이힐까지 우리 몸의 다양한 시각

‘우리 몸 문화 탐사기’ 최아롱 지음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로마의 권력자들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를 유혹할 때 그녀의 향기가 큰 역할을 했다. 클레오파트라는 목욕 후 장미, 수선화, 백합 등의 향내가 나는 향유를 사용했다. 또 방안에서도 향내가 나도록 향유를 썼고 음료수, 사탕, 과자도 향료가 들어 있는 것만 고집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많은 남성들이 그녀의 향기에 매혹됐을까? 신간 ‘우리 몸 문화 탐사기’를 낸 최아롱씨는 “냄새는 각자의 아우라를 형성하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모든 인간은 자연 환경이나 기후 조건에 적응해 살아가는데, 이런 환경과 음식은 우리 몸에 특유의 냄새를 만든다는 것이다. 자신의 기질과 경험했던 냄새와 경험 등이 얽히면서 냄새에 대한 각기 다른 기억과 의미들이 생겨나게 된다.

클레오파트라에게서 풍기는 향긋한 냄새가 그녀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는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냄새의 계급’이 생겨나게 된다. 사람들이 상대방의 냄새와 위생에 민감해졌다. 강력한 권력을 가진 서구 사회의 백인 상류층이 생겨나면서, 이방인을 ‘냄새 난다’고 배척하기 시작했다. 냄새가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요소로 작용한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냄새는 절대적인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에서 냄새의 차이를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사람의 몸은 문화·사회·정치적으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팔과 다리, 피부 색깔부터 헤어스타일까지 몸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듯해도 그렇지 않다.

또 콧물·가래부터 하이힐까지 몸과 연루된 다양한 테마를 문화인류학적으로 분석한다. 횡(橫)으로 지역을 비교하고, 종(縱)으로 각 문화권의 몸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소개한다.

예를 들면, 유럽인은 운동화를 신고 출근해 구두로 갈아 신는다. 한국인은 구두를 신고 출근해 슬리퍼로 갈아 신는다. 발과 관련된 간단한 습관이지만 이 안에는 서로 다른 문화가 담겨 있다.

한국인은 직장을 ‘우리들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유럽인은 회사를 공적인 공간으로 인식한다. 한국인은 자신들의 공간에서 편하게 지내기 위해 간편한 신으로 갈아신고, 유럽인은 그 반대다.

또 서구 여성은 얼굴뿐 아니라 몸 전체로 개성을 표현하지만 한국 여성들은 생각보다 제약을 많이 받는다. 머리 모양만 해도 ‘쳐나는 생머리, 아줌마는 파마머리’ 등 외부적인 압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저자는 이런 현상 때문에 “한국 여성들은 개성을 표현할 선택의 여지가 없어 유일한 돌파구로 얼굴에 목숨을 걸게 된 것 아닐까”라며 의문을 던진다.

이 밖에 인종과 피부색, 누드, 얼굴, 문신, 속옷, 몸매 등 우리 몸속에 담긴 다양한 문화 탐사가 흥미롭다.

(신인문사·1만6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혼란 속에서 찾은 온전한 자아

‘낮익은 타인들의 도시’

최인호 지음



암투병 중인 소설가 최인호(66)씨가 온몸으로 쓴 새 장편소설 ‘낮익은 타인들의 도시’를 출간했다.

이번 소설은 2006년 ‘제4의 제국’ 이후 5년 만에 펴내는 장편이라는 데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도 2008년 집삼암 수술을 받은 지 3년 만에 선보이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소설은 익숙한 일상에서 길을 잃은 한 남자의 사흘을 그린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현실에서 낯섬을 느끼게 된 K가 사흘 동안 자신의 본모습을 찾아 헤매는 이야기다. 특이한 구조, 그로테스크한 인물의 설정, 환상주의와 사실주의를 넘나드는 전개 등을 통해 뒤틀리고 붕괴된 현실의 틈새에서 진실을 발견하는 현대인의 초상을 담았다.

그런 의미에서 소설 속 주인공 K는 최인호의 분신에 다름 아니다. 특히 작가가 성경에서 인용(하느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는) “나는 곧 나다”라는 말은 소설의 말미 주인공 K가 자신의 또 다른 자아인 K1과 합체되는 장면과 연결되는 데는 암을 통해 오히려 온전한 자아를 찾아가는 작가의 눈물겨운 현실과 오버랩되어 더 큰 감동을 준다.

이번 소설을 통해 지난 30여 년 가까이 몰두했던 역사, 종교소설에서 현대소설로의 회귀를 운운하며, 집필하는 하루하루가 ‘고통의 축제’였다고 표현하는 작가의 말에서 당당함과 식지 않는 창작의 열정을 읽을 수 있다.

(여백·1만28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오늘날 호남 정신은 이순신의 우국충정

‘임진왜란과 호남 사람들’

김세곤 지음



역사·인물기행 글을 주로 쓰고 있는 김세곤(58·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씨가 임진왜란(1592~1598년)을 호남과 호남인의 입장에서 조명한 ‘호남 정신의 뿌리를 찾아서 2-임진왜란과 호남 사람들’을 냈다.

책은 김씨가 지난해 출간한 ‘호남정신의 뿌리를 찾아서-충의 길을 가다’의 후속편이다.

호남정신의 뿌리를 ‘충(忠)’의 관점에서 살펴본 이번 책은 나라가 위태로울 때 분연히 일어났던 호남의 병의 활동과 뛰어난 지략과 용맹으로 나라를 구한 이순신의 우국충정이 오늘날 호남 정신의 근간이 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총 3부로 구성된 책은 김천일과 고경명 등 호남의병의 활동, 이치 전투에서 승리한 권율과 황진, 임진왜란의 판도를 바꾸며 왜군을 공포에 떨게 했던 이순신 조선 수군의 활약상, 고경명의 아들 고종후와 전라좌의병, 전라우의병 등의 행적과 기록을 한데 정리했다.

앞으로 윤선도·조광조·남효은·서거정 등 조선의 인물과 신재효·고종·명성황후·유길준 등 근대 인물, 지소태우·이매창·황진이 등 역사 속 여성 등을 다룬 평전을 추가로 낼 예정이다.

앞으로 윤선도·조광조·남효은·서거정 등 조선의 인물과 신재효·고종·명성황후·유길준 등 근대 인물, 지소태우·이매창·황진이 등 역사 속 여성 등을 다룬 평전을 추가로 낼 예정이다.

(은세미로·1만8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애덤 스미스부터 케인즈까지

SF 마니아들의 절대적 신뢰

현재 시각으로 바라본 안중근·최남선·이완용

‘경제학자가 들려주는...’

김용중 외 지음



어렵고 아리송한 경제 이야기를 쉽게 풀어쓴 인문교양 시리즈 ‘경제학자가 들려주는 경제이야기’(전 5권)가 출간됐다.

고전 경제학의 창시자 애덤 스미스부터 세계 대공황의 해법을 제시한 수정자본주의 주창자 케인즈까지 마치 경제학자가 직접 이야기하듯 알기 쉽게 풀어 써 읽는 재미를 더한다.

‘애덤 스미스가 들려주는 시장 경제 이야기’ ‘세이가 들려주는 생산·분배·소비 이야기’ 등 총 5권으로 구성된 시

리즈는 저자 대부분이 경제학을 전공한 학자이거나 현직 교사로 꾸려져 학교 경제교육 교과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을 짚어 주고, 경제를 생활 속 이야기와 연관시켜 학생들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유익하다. 다양한 사례와 용어설명을 통해 딱딱한 경제를 쉽게 설명해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경제의 다양한 관계를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점도 이 책의 장점이다.

(저음과모음·각 권 1만1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화성의 타임슬립’ 외

필립 K. 딕 지음



SF 마니아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고 있는 필립 K. 딕 전집이 드디어 출간됐다.

필립 K. 딕은 SF 영화의 고전으로 꼽히는 ‘블레이드 러너’를 비롯, ‘토탈 리콜’, ‘콘트롤러’ ‘페이렉’ 등 할리우드가 가장 사랑하는 작가로 꼽히는 작가다.

이번에 먼저 출간된 ‘화성의 타임슬립’은 고도로 발달된 기계문명 사회에서 제기될 수 광기의 문제를 다룬 소설이다.

이 책, ‘닥터 블러드 머니’는 핵폭발로 인한 대재앙 이후 모든 것이 사라진 세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재난에 대처해나가는지 보여주는 작품이다.

필립 K. 딕 전집은 오는 2013년까지 총 12권으로 완간될 예정이다.

(플라북·각권 1만35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한겨레역사인물평전’

한겨레출판·부산대 점필재연구소 기획



한겨레출판과 부산대 점필재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한겨레역사인물평전’ 1차분이 출간됐다.

다양한 우리 과거사 인물들을 현재의 시각으로 조명해본다는 취지 아래 기획된 총 100권 가운데 우선 ‘근대를 바라보는 3인의 스펙트럼’이라는 제목으로 안중근, 최남선, 이완용 세 사람의 평전이 먼저 나왔다.

동양의 평화를 위해 이토 히로부미에게 총을 겨눴던 안중근(1879~1910년) 의사와 당대를 대표하는 지식이자 신문화의 선구자로 주목받았으나 결국 변절의 길을 걸었던 문제적 인물 최남선(1890~1957년), 그리고 ‘매국노’로 낙인 찍혀 거의 실체를 조명받지 못했던 이완용(1858~1926년)을 새로운 시각으로

되살려냈다.

평전 발간을 주도한 정철현 교수는 “아득한 저 고대로부터 근대 전환의 격변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를 다채롭게 아로새겼던 수많은 인물들을 평전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며 “시대적 흐름에 유념하면서 성패·신분·성별 등을 나뉠 고려, 유사한 삶을 살았던 인물들을 몇몇 범주로 묶어보았다”고 밝혔다.

앞으로 윤선도·조광조·남효은·서거정 등 조선의 인물과 신재효·고종·명성황후·유길준 등 근대 인물, 지소태우·이매창·황진이 등 역사 속 여성 등을 다룬 평전을 추가로 낼 예정이다.

(한겨레출판·각 권 1만5000~1만8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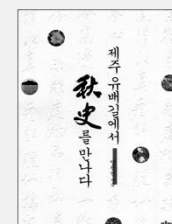
신간

▲열혈청춘-우리 시대 멘토 5인이 전하는 2030 희망 프로젝트=법륜 스님, 노회경 작가, 박원순 변호사, 강경란 PD, 윤명철 동국대 교수가 평화재단에서 ‘우리 함께 꿈꾸자’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내용을 묶었다. 이들은 각각 행복, 사랑, 성공, 평화, 도전이라는 5가지 주제를 통해 답을 전하고 있다. <휴·1만2000원>

▲매혹된 혼-세계를 사로잡은 최승희 1, 2, 3 =한국출판문화상 등을 수상한 ‘불과 얼음’의 작가 고정익씨의 역사소설.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태어나 세계의 혼을 빼앗은 ‘세기의 무희’ 최승희의 삶을 소재로 했다. 혹독한 가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세계적인 무용가로 성장한 최승희의 파란만장한 인생과 예술혼, 성공 신화를 사실적으로 그렸다. <동서문화사·각 권 1만2000원>

▲그림, 어떻게 시작할까? =미국에서 ‘토요일 아침 드로잉 클럽’ 강의를 하고있는 화가 컷베넷이 그림을 그리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드로잉하는 법과 내면의 창조성을 찾는 법을 알려준다. 저자는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며 “드로잉은 당신이 진정한 창조적 자아에 다가갈 수 있는 간단하지만 꽤 훌륭한 도구”가 되어 줄 것”이라고 말한다. <한스미디어·1만3000원>

▲제주 유배길에서 추사를 만나다=시인이자 교수인 양진건(54)씨가 추사 김정희(1786~1856년)의 제주 유배 시절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추사는 55세 때인 1840년 ‘양산도 옥사 사건’에 연루돼



제주도로 귀양을 가게 된다. 양씨는 당시 추사가 지인이나 아내에게 보낸 편지와 각종 시서화, 제자의 진술 등을 통해 추사의 유배 생활을 복원하고 있다. <푸른역사·1만5000원>

▲빈집에 깃들다=경북 문경의 산골마을에 9년째 살고 있는 전직 중학교 교사 박계혜씨의 귀촌일기. 마흔 중반이던 그는 산골 할머니, 할아버지들 틈에서 ‘경집 새댁이’로 불리며 새 삶을 시작한다. 산골 빈집에 들어가 그곳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야기가 정겹다. <민들레·1만1000원>

▲히든=‘침묵의 무게’의 작가 헤더 구먼커프의 두번째 소설. 한 소녀가 저지른 살인사건을 둘러싸고 부모의 무관심이 자녀에게 얼마나 비극적인 결말을 안겨주는지 보여주는 가족소설이다. 열여섯 살 소녀가 살인혐의로 수감돼 5년을 복역하다 가석방되면서 시작되는 소설은 살인이 일어난 밤의 비밀을 서서히 드러내면서 부모의 책임에 대해 일깨운다. <복개솔·1만2000원>

▲박근혜의 거울=손석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장이 박근혜 전 나라대표를 통해 오늘의 한국정치를 읽는다. ‘왜곡된 반사 또는 부풀려진 신화’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언론에 비친 ‘박근혜 현상’을 살펴보고, 이를 가능하게 한 역대 한국정치의 계보를 짚어낸 후 박 전 대표가 표방하는 가치관과 지향점을 분석했다. <시대의창·1만5000원>



▲백발백중 다다익선 고사성어=친구 사이의 깊은 우정을 보여준 관중과 포숙아 이야기 관포지교(管鮑之交)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고사성어 46개를 골라 그에 얽힌 이야기를 역사적 고증을 거쳐 담았다. 고사성어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역사·예술·과학 등 다양한 교양을 쌓게 해준다. <아이세움·1만1000원>

▲진정한 일곱 살=동화 작가 허은미씨가 자신의 늦둥이 딸을 키우면서 겪은 체험을 바탕으로 쓴 그림책 동화다. 음식과 놀이습관, 단짝 친구와 양보의 개념 등 아이의 일상을 섬세하게 담았다. 예닐곱 살 아이가 성장을 확인 받고 싶어 하는 바람과 아직 어려서 어른에게 기대는 심리를 엄마의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냈다. <양철북·9500원>

▲프랑스어의 시계=발음교정사라는 특이한 이력을 지닌 프랑스 작가 노란 빌맹의 동화. 프랑스어가 우연히 얻게 된 낡은 시계를 통해 하루하루의 시간이, 매일 똑같이 반복되어 지겹고 지루해 보이는 일상이 실은 얼마나 소중한



지 깨닫게 한다. 소심하고 평범한 주인공을 통해 내 삶의 주인공은 내가 되어야 함을, 일상은 삶의 연속선상에 있는 과정임을 소박하지만 깊이 있게 전달한다. <미래아이·9000원>

▲속눈썹 아빠=‘불량한 자전거 여행’을 쓴 김남중(39)씨의 장편. 고단한 사회생활로 술에 절어 살다가 결국 위암에 걸리고 마는 현주 아빠의 귀여운(?) 투병기가 이야기의 줄거리다. 아빠의 병 때문에 알게된 가족간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아암이 재발해 병원신세를 지고 있는 ‘선우’를 만나 이성에 눈뜨는 사춘기 소녀의 알콩달콩 로맨스가 멋지게 어우러졌다. <푸른솔주니어·9000원>

▲자전거 타는 대통령=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마친 뒤 봉하마을에서 지냈던 시절을 동화로 구성했다. 시인이자 소설가인 조재도씨가 쓰고 박근용씨가 그림을 그렸다. 봉하마을에 사는 한 어린이가 대통령 할아버지를 만나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느낀 이야기를 담고 있다. <복툰도·1만2000원>

어린이 책꽂이